

■ 지방선거 핫코너

이용섭 "광주~부산 고속철도 건설을"

민주당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16일 "동서 간 교류 촉진 및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으로써 '광주~부산 고속철도' 건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에서 부산까지는 고속버스로 3시간30분, 무궁화 열차로는 7시간이 걸려 두 지역간 벽이 두꺼울 수밖에 없다"면서 "광주~부산 고속철도가 건설될 경우 광주에서 부산까지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돼 두 지역 간 인적·물적 교류의 촉진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서통합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난실 "복지·공동체 광주 만들 것"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진보신당 창당 2주년을 맞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초록광주'와 '복지광주'를 실현해 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진보신당 창당 2주년에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한국사회는 비정규직과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데 광주도 예외는 아니다"면서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1등 광주'가 아닌 '공동체 광주'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보신당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더 봉사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종덕 "도지사 경선 공정지침 마련해야"

전남지사 출마 뜻을 밝힌 배종덕 한나라당 전 북포지구당위원장은 16일 "중앙당은 하루속히 공정경선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남도당 김기룡 위원장의 특정후보에 대한 친절한 행위로 야기된 김문일 후보와의 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사상 처음 치러질 후보경선이 기대와 달리 욕동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산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불모지인 전남에서 모처럼 맞이한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경선이 축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정경선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 방법과 관련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박주선(오른쪽) 최고위원과 김동철 광주시장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법제도개선특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훈 前 나주시장 부인 출마

주향득씨 시민후보로...3번째 부부단체장 탄생 여부 주목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낙마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을 대신 해서 부인 주향득(47)씨가 6·2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나주농민회와 자치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20여 곳으로 구성된 '주향득 나주시장 후보 추대위원회'에 따르면 주씨가 지난 15일 시민후보 수락 촉구대회에서 후보 수락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씨는 "많은 시민들이 신 전 시장의 민생정치와 혁신도시 완성을 요청해 많이 고민한 끝에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 전 시장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정치적 미련을 위해 아내가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민과 농민이 잘 사는 나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씨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중도하차한 기초단체장 남편을 대신해 아내가 출마한 사례는 화순, 장성군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두 번 모두 도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씨가 나주시장에 당선될 경우 일호경 전 화순군수 부부와 유두석 전 장성군수 부부에 이어 세 번째 부부 자치단체장이

된다.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계속하던 주씨가 출마를 결행한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민사회세력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주씨가 당선되기까지는 술한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의 벽을 넘어야 한다. 그동안 신 전 시장은 민주당 후보의 거센 도전에도 불구하고,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인정받아 두 번이나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대타'를 내세운 상황에서 변함없는 나주시민의 사랑을 받아 3선이란 험준한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선 임기 동안 술한 법정 다툼으로 시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을 뒤로하고 부인을 내세운 것은 정치도의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주의 한 정치권 인사는 "주씨가 시민사회단체 조직을 기반으로 남편 대신 3선 도전에 나섰지만 남편의 수렴정정을 우려하는 시각과 신 전 시장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해 쉽지 않은 선거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을 광주김치축제, 전남 지역축제와 연계

10월23~31일 개최

올해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는 순천갈대밭축제와 영암 F1대회 등 전남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위해 오는 10월23일부터 9일간 광주시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는 16일 "10월 중순부터 F1대회, 남도음

식문화관잔치 등 전남 각 시·군의 축제가 계속될 예정으로, 세계김치문화축제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위원회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차 총회를 열고 행사 기간과 함께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 프로모션 추진, 온라인 김치 마케팅 강화, 문화관광축제 기획 등의 추진 전략을 선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호준 '정책공약 개발' 자문위 구성

이호준 민주당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대학교수와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자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공약 개발에 나섰다



생활자치자문위원회는 경제·문화·교육·복지·환경·교통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 맞는 공약개발을 하게 된다.

이 후보는 "그동안 16개 동을 순회 방문하면서 주민 속원사업을 파악한 결과 백은 고가 철거 및 주변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특성화 및 송암공단 기능 개선 등"이라며 "이를 토대로 정책개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옥 '개방형 직위제 확대할 것'

김선옥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서구청 청렴도 높이기'를 위한 정책으로 "개방형 직위제도를 확대해 공직사회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존의 경직된 전통적 관리체계를 성과와 고객 중심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형 직위제 확대는 폐쇄적 공직 문화 변화로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조성할 수 있고, 지역 인재 및 민간 전문가들의 행정 참여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평오 "도심 녹지 확대 친환경 북구로"

남평오 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무등산, 영산강 등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북구 도심의 녹지를 더욱 확대해 친 환경 북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후보는 이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영산강 수변구역 습지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도심 아이들의 자연학습과 가족센터 등으로 활용되는 것이 좋다"면서 "북구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도시로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정일 "광산교육청 신설하겠다"

이정일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6일 교육특구 조성 정책공약과 관련 "광산교육청 신설을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현재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도 광산구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광산교육청 신설은 필연적"이라며 "문제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되면 협의·협력을 통해 반드시 임기 내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산교육청 신설로 광산구를 호남권 최고의 학군을 조성해 훌륭한 인재들이 교육환경을 찾아 광산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신 18일 선거사무소 개소

유재신 민주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5시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에 선거사무소를 연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용섭·전갑길·강운태·양형일 광주시장 예비후보들과 고재유 전 광주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 지지자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 후보는 개소식에서 "8년 동안의 시의원 경험을 토대로 광산구를 서남권 경제중심도시, 최첨단 환경도시, 사람중심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광주는 물론 국토 서남권의 미래를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이명자·이승희·홍인화 '우수 여성의원'

광주시의회 이명자(사진) 의원과 북구의회 이승희, 홍인화 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민선 4기 전국 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사례 공모에서 '맑은정치' 분야 대상과 '생활정치' 분야 최우수상을 받는다.



이명자 의원은 "광주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활발하게 펼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희·홍인화 의원은 투명한 행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이바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염동익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염동익 민주당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는 16일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자연 복원하고, 수변 구역은 푸른 숲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예비후보는 "광주천에 체육시설, 조형물 등 과도한 인공시설물 설치보다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면서 "상류 및 지천 복원, 소형 하수처리장 설치, 빗물 활용, 하수관거 정비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혜령 광주시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양혜령 광주시의원(동구 제1선거구)은 오는 20일 오후 3시 동구 계림동 미즈프라자 4층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시의원 '재선'에 도전하는 양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서 "그동안 분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다"면서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믿음직한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여성정치聯 "여성후보 30% 공천해야"

한국여성정치연맹(총재 김방림)은 16일 "각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체 후보 중 여성후보를 30% 공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재 등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려면 여성의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며 "경선을 하는 경우는 여성후보 20% 이상점 부여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여성후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는 여성이 추천되지 않는 선거구가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2010 World Kimchi Culture Festival' (2010 세계김치문화축제)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kimchi jar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details about the festival dates (October 23-31), location (Gwangju World Cup Stadium),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World Kimchi Culture Festival Committee).